

#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 걸돈다

## 삼겹살·안심·등심·목살 등 부위별 가공·판매 어려워 소비자 인식 부족도... 권장사항 의무화로 경쟁력 키워야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의 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권장사항으로 돼있는데도 가공·판매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걸뚫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축·가공단계에서부터 부위별 육질등급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매업체들의 등급표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 시장개방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돼지고기 육질등급제 도입 배경 =현재 쇠고기는 육질기준의 1++, 1+, 1~3등급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규격(크기)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D등급으로만 분류돼왔다.

기존의 규격등급에서는 돼지가 얼마나 규격에 맞게 자랐느냐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육질이 뛰어나도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낮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농림부는 한미FTA를 계기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1일 돼지고기 육질등급제를 도입했다.

새로 마련된 등급체계는 돼지고기의 육질을 1+, 1~3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된다. 1차로 고رن 지방 두

께 등을 통해 비육상태를 살핀 뒤 2차 검사에서 ▲고기색 ▲지방색 ▲근육내 지방 침착도(마블링) ▲삼겹살 상태 ▲조지방 ▲결함 등 6개 육질요소를 꼼꼼히 살펴 1+부터 3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에 따른 가격=현재 할인점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이 100g에 1천500원, 앞다리살은 700~900원에 팔린다. 그러나 등급제가 보편화될 경우 가격편차가 커질 전망이다. 최고등급인 1+를 받은 고기는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보다 20%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3등급은 20~

30%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시행상 문제는 없다=돼지고기 등급판정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대형할인점이나 일반 정육점들은 유통과정에서 돼지고기의 품질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축산업계와 유통업계는 현재 제도가 권장사항으로 돼있는데도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육질등급제 정착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축협 관계자는 “소와는 달리 돼지는 도축두수가 많아 가공시간과 투입인력을 고려할 때 삼겹살·안심·등심·목살 등 부위별로 육질등급을 매겨 가공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또 가공단계에서 1+등급과 1등급, 2등급이 섞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22일 쌍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갖고 있다. 금호고속은 이날 배추 1천포기로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세대와 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 (금호고속 제공)

## 10억 이상 국세 체납자 1년새 15% ↑

### 광주·전남 116명 포함 전국 3,046명으로 늘어

#### 정태수 전 한보회장 4년째 1위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1년만에 15.5% (410명) 늘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광주·전남지역 116명(체납액 652억원)을 포함해 모두 3천46명으로 늘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무려 13조9천743억원으로 불어나다.

국세청은 22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천4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개 대상자 2천636명 가운데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낸 251명을 제외한 2천385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새로 요건을 해당하는 661명을 신규로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공개 첫해인 2004년 1천101명에서 2005년 2천135명, 2006년 2천636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면서 올해는 3천명을 넘겼다.

명단 공개자 3천46명 가운데 개인은 1천618명, 법인은 1천848명이며 체납액 13조9천743억원 중 법인은 7조805억원, 개인은 6조8천938억원이



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4년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천225억원을 기록했다. 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이 1천7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취발유인 세복스를 판매한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1천239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신규 공개자이면서 법인부문 1위를 기록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500억원 이상' 법인 5명, 개인 4명 ▲'100억~500억원' 법인 133명, 개인 95명 ▲'50억~100억원' 법인 210명, 개인 192명 ▲'50억원 이하' 법인 1천80명, 개인 1천327명 등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캐나다 쇠고기 美와 차별 앞겠다”

### 농림부 입장 밝혀

정부는 22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과 관련, 미국과 캐나다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검역 기술협의 첫머리에서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 있어) 캐나다와 미국을 차별해 달리 취급할 의도가 없다”며 “이번 협상을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측 수석대표인 게리 리틀(Gary Little) 식품검사청(C-

FIA) 부국장은 “쇠고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상호 이해를 통해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캐나다가 저야할 책임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우리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5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세추역사부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6월부터 아시아 각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양제철소, 파트너사와 혁신 페스티벌

광양제철소는 21일 백운아트홀에서 ‘2007 혁신 페스티벌’을 열어 올해 외주파트너사 직원들과 함께 추진해 온 혁신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혁신 페스티벌은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해 외주파트너사 대표와 임직원 1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공유, 칭찬과 격려, 실천비타민 3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됐다.

2007년 광양제철소의 혁신 활동 추진경과 및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이성수 혁신지원그룹 리더의 발표에

이어 지원·선강·압연·설비 4개 부문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소속 부문의 혁신활동을 소개하는 UCC를 상영했다.

또 한국 제안명인인 에이스 디지털 경영혁신팀장 방순국 부장이 ‘인생을 바꾼 혁신’이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지난 1년간 우수 혁신활동을 활발히 펼친 시그마 우수과제 9팀과 학습동아리 최우수 3팀, QSS 과제 최우수 3팀, 외주파트너사 최우수 3팀 등 총 18팀에 대한 포상도 마련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세계 SUV 시장 석권 노린다 기아차 야심작 ‘모하비’ 공개

기아차의 프리미엄 시장을 노린 기대작 ‘모하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차는 22일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모하비(MOHAVE, 프로젝트명 HM) 시승회를 열고 차량을 전격 공개했다. 기아차가 새롭게 개발한 플랫폼과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 모하비는 3년의 개발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다.

모하비란 차명은 ‘최고의 기술을 갖춘 SUV 최강자’(Majesty Of Hightech Active VEhicl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2010년에 세계 최대 태양열 에너지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명이자 기아차의 미국주행성능 시험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모하비는 북미 등 대형 SUV 시장을 주요 공략지역으로 삼고 있



으며 경쟁차종은 포드 익스플로러, 쥘 그랜드 체로키, 도요타 4런너 등이다.

모하비는 기아차 디자인 총괄 책임자(CDO)인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의 디자인 철학인 ‘직선의 단순화’가 양산차로는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로 역동적이면서도 폭격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을 디자인 전반에 내세웠다. /이종태기자 jilee@

## ‘흡연자에 좋은 술, 매취순’ 최우수

### 보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호남대 ‘연금술사’팀(민재상·송현호·김성용)이 ‘제 4회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흡연자에 좋은 술, 매취순’을 출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전남대 ‘EVEvolution(양준석·정국희·이초희)’과 ‘술이수다(양소라·강민정)’가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당간향(조선대 박수정·최아린, 전남대 은수례)’, ‘아름찬 폭분자(조선대 최현아·김근영·박다영)’, ‘보해미안(전주대 이준영·장은혜·조성민)’에

계 돌아갔다. 이밖에 입선은 ‘백두산(조선대 백석교·백두산·이주영)’, ‘High Club(전남대 구재영·심요선·정다아)’, ‘동백(전남대 김재민·김순호·강수훈)’, ‘여유상색(광주대 김태경·진성훈·박상수)’이 차지했다.

호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연구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 4회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및 시상식이 지역 대학생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종태기자 jilee@

## 금호고속 등 11개 기업이 국가 품질상 수상

산업자원부는 22일 금호고속·해양경찰청·두산엔진 등 11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올해 국가품질 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고속사업부는 서비스혁신부문상을 수상한다. 또 현장 품질 개선과 제안활동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제안상은 최근 3년간 1천471건의 각종 제안을 통해 12억원의 원가를 절감하는데 기여한 금호미쓰이화학 강상구 대리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시상행사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과 기업체 대표, 근로자 등 1천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겨울방학 버려진 영아 캠프

www.wingcamp.com

영아 캠프는 겨울방학 동안 영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영아 캠프는 영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아 캠프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영아 캠프는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영아 캠프는 영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영아 캠프는 영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대학생선생

대학생선생은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학생선생은 대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생선생은 대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선생은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대학생선생은 대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대학생선생은 대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